

제51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선한 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리면서 저마다의 소중한 미래를 가꾸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국선열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릴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열들의 애국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실천하고, 이를 자손만대에 가르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다짐에 보태어 다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

록 하자는 것입니다. 애국선열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바쳤던 그 역사로부터 배우기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배웠더라도 실천하기를 외면해서 같은 불행을 반복해 온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망국의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짓밟히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멀리 이역만리에서 싸우다가 끝내는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나라의 힘을 키우지 않고 서로 편을 갈라 끊임없이 싸우다가 초래한 일입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일으켜야 할 때,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여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한 결과입니다. 사리사욕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다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독단적인 사상체계 때문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아마 두 가지 다일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으나 동서대립의 국제질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나라가 갈라졌고, 마침내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서 대처했다면 그 엄청난 불행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단지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민족정기와 자주독립, 통일을 외쳤지만 서로를 배제하고 용납하지 못한 채 목숨까지 걸고 싸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까지 권력에 이용한 장기독재는 결국 4·19의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5·16과 10월유신, 군사독재로 이어진 불행한 역사도 5·18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해마다 3·1절, 광복절, 제헌절을 기념하면서도 우리가 역사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역사의 교훈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한 역사는 마감해야 합니다. 분열을 끝내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상대와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견과 이해관계

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로 설득하고 양보로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상대를 배제하거나 타도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절대반대도, 결사반대도 다시 생각합시다.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사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정치도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나갑시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품의 질과 서비스로 경쟁하듯이 정치도 정책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 대결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감정의 응어리도 이제 다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애국하는 방법을 놓고 적대했던 분들을 이곳 현충원, 그리고 4·19, 5·18민주묘지 등 전국의 국립묘지에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의 공적을 다 같이 추앙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제도적으로 화해를 이루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념적 색채를 씌우려는 풍토가 남아 있고, 또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분노와 원한이 다 풀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마저도 극복해 나갑시다. 지난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합시다.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다시는 불행한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